

삼성 이재용, 10대그룹 총수 중 관심도 압도적 1위 기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대 그룹 총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순호감도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가장 높았다.

21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GBR)는 지난 7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3개월간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 그룹 총수는 정보량 순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동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승연 한화그룹 회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 대상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어 최태원·정의선·구광모 회장 등에 높은 관심 순호감도,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가장 높아

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동일인 ㈜포스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동일인 정몽준 이사장) ▲허태수 GS그룹 회장(동일인 허정수 회장) 등 총 10명이다.

조사 당시 동일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엔 그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동일인 총수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수장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5만

812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우수 해외 기업들과의 잇단 협력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국내 첫 시도되는 3차 협력사와의 공정계약 체결 등 굵직한 경영 뉴스들이 많았던데다 공판 관련 소식등도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위는 '최태원 회장' 1만4187건, 3위 '정의선 회장' 9645건 순이었다.

이어 '구광모 회장' 7834건, '신동빈 회장' 7538건, '이성희 회장' 5525건, '김승연 회장' 3817건, '최정우 회장' 3657건, '정기선 부사장' 1043건으로



나타났다. '허태수 회장'은 928건으로 세 자릿수에 그치며 가장 적은 정보량을 기록했다.

10대그룹 총수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정기선 부사장'이 64.33%로

유일하게 50%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최정우 회장' 49.17%, '이성희 회장' 42.95%, '정의선 회장' 39.65%, '최태원 회장' 28.24%, '허태수 회장' 28.02%, '김승연 회장' 24.76%, '구광

모 회장' 21.28% 순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가 마이너스인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11.79%)'과 '신동빈 회장(-5.73%)' 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률이 높은 이유는 공판 뉴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의 부정률이 높은 이유는 이 기간 롯데쇼핑의 '최악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 회장이 연봉 킹이라는 소식 및 '롯데그룹 2인자' 황각부 부회장 퇴진,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 총수일가 보유 주식자산을 100% 자녀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 등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성인, 도박, 거래, 스포츠, 부동산, 게임, 증권, 광고, 공통글 등에 관한 자료는 제외됐다.

김희기자

넷플릭스 “韓·日, 3분기 성장세 일등 공신”

전 세계 유료가입자 1억9500만명 돌파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시장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컬러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한편 한국 방송사 및 제작사와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는 20일(현지시간) 올 3분기 실적발표에서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22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95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810만명이 증가해 지난해 실적(2780만명)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견인했다. 아태 지역 가입자는 전 세계 신규 가입자의 46%를 차지했고, 아태 시장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66% 상승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3분기 성장에 일등 공신이 됐다고 넷플릭스 측은 전했다.

실제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수는 급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넷플릭스 한국 유료 구독자 수는 330만명이다. 모바일에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도 결제액을 근거로 지난 9월 한국의 유료 결제자가 336만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4만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 콘텐츠 공동 제작과 파트너십 등에 거의 7억달러(약 8000억원)를 한국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제작자가 제작해 전 세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소개된 작품은 70편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작품들은 31개 이상 언어 자막 및 20개 이상 언어 더빙 방식으로 해외로 수출됐다.

외신들은 특히 넷플릭스가 제작한 '킹덤', '보건교사 안은영', '인간수업' 등의 드라마와 걸그룹 블랙핑크

의 다큐멘터리 등에 주목했다.

지난해 말부터 CJ ENM, 스튜디오 오드레곤, JTBC 등과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으며 인기작들을 대거 공개한 점도 영향력 확대에 주요했다는 평가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성숙한 엔터테인먼트 강국인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전 세계에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넷플릭스가 배우면서도 함께 동반성장하기 원하는 중요한 국가"라며 "킹덤", "인간수업", "사랑의 불시착", "#살아있다" 등 걸출한 한국의 장작가 및 파너스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한국 작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며, 다양한 문화권을 연결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자유에 기반한 성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경기자

전남농기원, 흑염소고기 산업화한다...74억원 투입

육종 관리·세대별 취향 맞춘 제품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흑염소 산업을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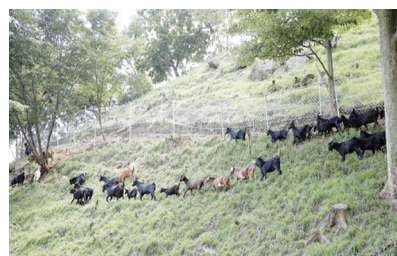
관련 사업 국비 4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30억원을 더해 총 74억원을 내년부터 3년 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전문 축산연구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가 주도한다.축산연구소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 성과의 농가 실용화·산업화를 높이기 위해 국

립축산과학원, 전남대, 순천대, 도축·가공업체, 염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그동안 흑염소 농가가 꾸준히 주장해 온 체계적인 개량 및 육종 확립, 거세 시기와 사양 관리 표준화, 전용사료 개발, 탕 위주에서 세대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누린내 제거기술 개발 등이다.

사업이 성과를 내면 흑염소의 육량을 늘리기 위해 농가가 외국종과 무분별한 교잡을 하며 발생한 대사성질병,



장기간 근친교배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하락, 불법 도축과 수입산 둔갑 판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이자도 못낸 기업 100곳 중 37곳 '역대 최대'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기업이 100곳 중 37곳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고, 통상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36.6%로 1년 전(35.2%)보다 1.4%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국제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4만1408곳 중 이자비용인 0인 기업을 제외한

38만487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영업적자에 이른 이자보상비율 0% 미만인 기업비율도 29.5%에서 30.5%로 확대됐다.

이자보상비율이 500% 이상 넘는 기업수는 39.7%에서 38.4%로 축소됐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26.5%로 전년(470.9%)보다 큰 폭 떨어졌다. 지난해 2014년(284.5%) 이후 최

저치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들의 빚 갚을 능력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다.

기업의 매출액증가율도 지난해 0.4%로 전년(4.0%)보다 큰 폭 둔화했다. 제조업은 -1.7%로 아예 감소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매출액이 8.1% 감소하고, 단가 하락으로 화학제품 매출도 5.2% 줄어든 영향이 컸다.

대기업의 매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2.3% 줄어 지난해 2015년(-4.14%)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선욱기자

삼성 '노치형' 폴더블폰 디자인 특허...‘보급형’ 적용되나

스마트폰 디자인 3종에 대한 특허 취득

삼성전자가 노치 형태의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3종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노치는 스마트폰 화면 윗부분을 움푹 파서 카메라와 수화기를 넣고 양옆으로 날짜, 배터리 용량 등을 표시한 디자인이다.

20일 네덜란드 IT 및 특허 전문 매체 레츠고디지털(LetsGoDigital)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다수의 카메라 모듈이 포함된 접이식 전자장치'라는 제목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으며, 지난 15일 승인되고 공개됐다.

관련 문서에는 3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2개 모델은 '아웃 폴딩'(바깥으로 접는) 방식이고 나머지 1개는 '겔럭시Z폴드2처럼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있는 '인 폴딩'(안으로 접는) 방식이다.

첫 번째 모델의 경우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크기가 된다.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 홈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펼쳐서 사용할 수 있고, 접으면 카메라가 2개가 된다.

두 번째 모델은 대체로 첫 번째 방식과 유사하지만, 프레임의 홈을 훨씬 확장해 더 많은 카메라 렌즈와 센서를 배치하고 접힌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모델은 아웃 폴딩 방식인 앞의 두 모델과 달리 인폴딩 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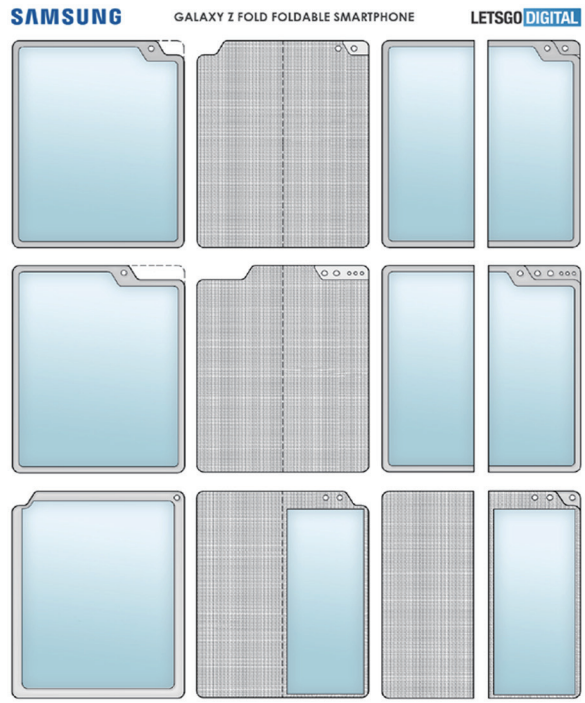
3종 모두 전면에 홈을 만들어내서 스마트폰을 달아도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했어도 실제 제품으로 반드시 출시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전면이 카메라 구멍을 제외한 부분을 화면으로 채우는 '핀치홀' 디자인을 채용하는 추세다.

IT매체 기즈모차이나는 갤럭시폴드에 노치를 적용하면 물입감이 떨어지고 앱 호환성 문제가 있다며 향후 출시할 폴더블폰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레츠고디지털은 프레임에 노치를 적용한 방식은 훨씬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전



삼성전자가 노치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디자인 3종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노치는 스마트폰 화면 윗부분을 움푹 파서 카메라와 수화기를 넣고 양옆으로 날짜, 배터리 용량 등을 표시한 디자인이다. (이미지 출처=레츠고디지털)

락)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 3'(가칭)보다는 보급형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 라이트'에 해당 디자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동취재본부

“이통 3사 ‘5G 불통’에 최대 35만원 보상하라 권고 나와”

“정부·이통3사, 보상기준 마련하고 적극 보상 나서야”



이동통신 3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통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

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21명의 5G 이용자가 참여연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시작됐다.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조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이통 3사는 보상기준 마련하고 적극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유나기자